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루터의 종교개혁 49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임원회의가 열립니다.

홍월교회 재건봉헌 감사예배가 내일 27일(월)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침7:30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30일) 10:30에 창경궁 정문 앞에서 모입니다.

11월 첫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감사 기도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청파교회 전교인 환경세미나를 합니다. 일시는 11월 9일(둘째주일) 오후1:30분, 장소는 교육관입니다. 주제는 <생협이야기>로 생활협동조합의 의미와 대안적인 소비실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 점심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은 로비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봅시다. 그 감사의 내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신 34:1~12 / 시 90:1~6, 13~17
살전 2:1~8 / 마 22:34~46

빌 4:10-13

오늘 식당 봉사 : 안정숙 진정숙 이해령 최희영 오미경 문복순 김정민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홍재 차혜심 광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명순 최철수
장혜숙 정현선 정영례 양정화 박진숙 추현영 유병선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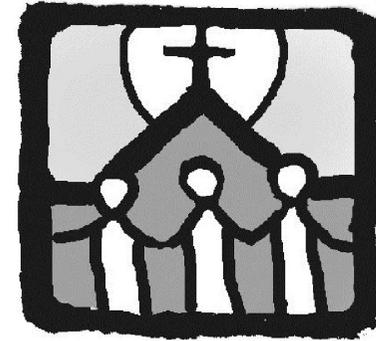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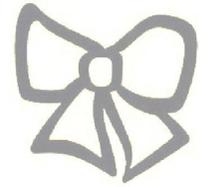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의 완성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추문거리가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체로서, 낮은 곳에서 억압받는 생명들 곁에 서 있어야 했던 건만, 물질의 풍요와 내 몸의 안락함을 좇아다녔습니다. 이제 갈릴리의 예수께서 함께 하셨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다움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박상호 김일랑 이은옥 김재홍 최희영 김준호 곽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필순 김혜진 김희진 박홍재 박시내 박영희 박옥식 방극숙 변재민
 이소혜 서정순 성지현 심상숙 안보혜 오미숙 유금주 윤미경 윤성종
 김윤정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은종인 이재문 이재훈 이주영 오재영
 이한림 김명희 이현순 임 영 정경례 장동훈 정은선 정선희 정종삼
 정현모 조경자 조병주 차혜심 노미향 최미자 허호범 박성실 홍순복

감사헌금

김경혜 김정진 김혜정 김태정 박미경 방문성 박혜경 설재용 김선희
 신미라 이재문 정완수 김재광 최형균 강경화 한준혜 무명12

생일감사헌금

권미숙 조병주

녹색꿈헌금

송형운 하미림 시시권 백경림 유청빈 무명2

	백혜숙	박성희	박성희	정두리
	신진식	최경미	임정자	심희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이명희
	노순옥	진정숙	심심	심현
	박홍재	박홍재	심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백허정
	김금순	김금순	유금주	김순경
	곽권희	윤수진	김재광	김명희
	안홍숙	오현정	노성희	김명희
	정영선	홍춘숙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최영혜	백성래
	김재홍	오자영		
	김재홍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종		

땡 감

- 이재무

여름 땡별

옳게 이기는 놈일수록

뺏다

뺏은 놈일수록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뺏은 놈일수록

벌레에 강하다

비바람 이길 수 있다

덜 뺏은 놈일수록

흥시로 가지 못한다

아, 둘러보아도 둘러보아도

이 여름 땡별 세월에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이 없다

뺏은 놈들이 없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어, 이름뿐인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삶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기 위하여, 억압받는 사람의 편에서 옳은 일을 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지체로서 올바르게 사는 길을 잇고, 이 시대의 풍조를 좇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우리의 삶에 겹겹이 쌓인 욕망의 찌든 더께를 씻어내겠습니다. 지치고 연약해진 생명의 곁에서 참된 길벗이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마틴 루터 영상	예수와 만난 사람들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명희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방문성 장로	하진솔 선생 신영신 집사

10월	영접위원	박홍재 홍순구 권혁순 권미숙 안홍숙 박해경
	헌금위원	한완식 박해경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생명, 생협

무위당 장일순(1928-1994)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무위당 이라는 호는 ‘아무 하는 일 없이 안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그는 민주운동에 헌신했음에도 정치인은 아니었고 생명 사상가이지만 작가도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삼천을 넘었습니다. 목사 이현주는 그를 부모 없는 집안의 맏형 같은 사람이라 했고, 소설가 김성동과 ‘아침이슬’의 김민기는 그를 아버지로 여긴다 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은 어디를 가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라 말했고, 판화가 이철수가 진정한 뜻에서 이 시대의 단 한 분의 선생님이라 꼽는 그 사람. 그를 기억할 이유는 많지만, 오늘은 우리나라 생협(생활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장일순과 그의 생명사상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무위당이 주도한 도시와 농촌 직거래 소비자 운동에서 태동한 <한살림>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활협동조합이지요. 사실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어 판매와 구매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모델은 유럽이나 일본이 역사도 규모도 훨씬 앞서갑니다. 그런데 <한살림>을 비롯한 우리나라 생협들은 작지만 특별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기농, 친환경 생산품만을 취급한다는 점이지요. 다른 나라의 경우 유기농을 취급하는 상점은 비싼 유기농전문점이지요. 하지만 애초에 도농을 연결하던 무위당의 생각은 소비자와 생산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땅과 하늘, 식물과 동물, 생명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생명사상 속에서는 파괴된 농심, 하루벌어 식료품을 사는 도시빈민, 그리고 화학약품과 대량생산에 죽어가는 땅과 자연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땅과 자연을 살리는 생산이 당연히 생협운동의 필수조건이 되었지요.

생명이 바글거리는 건강한 땅에서 농민은 건강한 생산을 하게 되고, 건강한 농산물 없이는 그것을 먹고사는 이들의 삶도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장일순이 아닌 우리에게도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미약한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결단과 생명의 힘이 모여 결국은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는 신앙과도 같은 강한 믿음, 그것이 장일순이 갖고 있던 특별한 리더십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주춧돌이 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버린 돌 같은 사람’, ‘버려진 사람 또는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공생과 협동의 논리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려는 생활협동조합운동에서 새로운 세상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 문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벗어나는 정성이 있어야하고,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며 생명적 삶을 살려고 하는 실천의지를 단호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끝없는 생산과 이를 소비해내기 위한 무절제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대부분 정신 놓고 살아갑니다. 그 자본이 무서운 권력으로 몰아쳐 우리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어떤 순간, 우리는 분노하지만 곧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장일순은 자본을 제압하는 힘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생협운동을 통해 보여주려 했습니다. 올해로 그가 타계한지 20년입니다. 그는 시인 김지하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이제 다양한 생협운동, 친환경 운동,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져 딱딱한 흙을 뚫고 피어나고 있습니다.

“혁명이란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것이라오. 혁명은 새로운 삶과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소? 새로운 삶이란 폭력으로 상대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닭이 병아리를 까내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쳐 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삶은 보듬어 안는 정성이 없이는 안 되지요.” 무위당(無爲堂) 장일순의 말입니다.